

이병노 담양군수, 명절 앞두고 가축시장 현장 방문

가격 동향·경매 진행상황 살피고 축협장·한우 농가 간담회 “축산농가 경영 안정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이병노 담양군수는 지난 15일 이른 새벽 담양읍 만성리 소재 가축시장을 방문해 한우 가격 동향 및 경매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담양군에 따르면 이날 가축시장에는 이병노 군수를 비롯해 이개호 국회의원, 최용만 군의장 및 군의원, 강종문 담양축협조합장, 오정운 농협 담양군지부장 등이 방문한 가운데 약 300마리의 한우가 거래됐다.

이병노 군수는 축협장 및 한우 농가와와 간담회에서 “한우 가격 하락으로 시름이 깊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특히 축산농가의 숙원인 조사료 TMR 가공시설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축산농가의 축분 문제 해소를 위해 경종 농가에 대한 유기질비료를 58만 포(22년)에서 105만 포(23년)로, 보조율 80%까지 확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국회의원은 “조속히 한우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미경산우 출하 장려금 인상과 정부비축수매 확대 군 급식 한우 공급 등을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겠다”며 “사료값 안정을 위해 담양축협 완전배합사료 가공시설 규모 확대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994년 10월 첫 경매를 시작으로 주 1회(매주 일요일) 열리는 담양가축시장은 전자



경매시스템을 갖춰 연간 1만 2천여 마리의 한우가 거래되며, 축산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담양=박종영 기자

곡성군, 올해 유기질비료 100% 공급 지원 박차

곡성군이 12일 군청 별관 회의실에서 2023년 유기질비료 공급관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은 총사업비 15억 원에 달하는 83만 211포(20kg)의 비료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농가들이 신청한 유기질비료 전량이다.

유기질비료는 비종별 및 등급별로 분류해 1,400원부터 1,800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비종별로 유기질비료가 13만 899포, 가축분비료가 69만 9,312포가 지원된다. 재원별로는 국비보전금 4억 9천 9백만 원, 군비 10억 원이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차질 없이 봄철 영농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퇴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유기질비료는 축산업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퇴비로 만들어 다시 농산물 생산에 활용하는 친환경 순환식 자연농법 중 하나다. 유기질비료를 사용함으로써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곡성=양해영 기자

나주시, 2023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3~6월 공공서비스 행정지원 등 32개 사업

나주시는 근로 취약계층의 고용·생계지원을 위한 2023년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45명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16일부터 27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사업 공고 및 신청 서류는 16일부터 시청 누리집 공고에 게시될 예정이다.

공공일자리 참여 자격은 모집공고일(1월 16일) 현재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시민이다.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 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가족 재산 총액이 4억원을 초과하는 가구 구성원은 참여할 수 없다.

시는 사업비 2억6700만원을 전액 시비로 투입해 근로자 인건비, 4대보험, 간식·재료비 등을 지원한다.

자격 요건 등 심사를 거쳐 참여자를 선발해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간 32개 사업 분야별 공공일 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분야는 행정자료 전산화, 민원안내 및 공공서비스 행정지원, 공공시설물 관리, 환경정화, 사회복지단체 프로그램 운영 보조 등으로 세부사업 목록은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이 저소득층,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소득 창출을 통한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나주=송준표 기자

화순군, 식량작물 맞춤형 컨설팅 수요조사

농업현장의 애로사항·맞춤형 상담으로 해결

화순군은 식량작물분야 농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신기술의 신속한 보급과 농업인 소득 제고를 위해 맞춤형컨설팅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맞춤형 컨

설팅은 벼, 콩, 감자, 옥수수 등 식량작물 재배 기술 뿐 아니라, 수출농업, 경영, 판로개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가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진행된다.

특히 분야별 전·현직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터가 현장에서 반복되는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기에 농가 만족도가 높다.

이번 컨설팅을 희망하는 식량작물 재배 농업인 및 단체에서는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참고하여 1월 20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사무소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현장수요 중심으로 농업인이 원하는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례=박진호 기자

“이번 설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성군, 설 연휴 종합대책 추진 백양사 휴게소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장성군이 설 연휴 기간인 21~24일 총무과를 중심으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분야별 7개 대책반을 구성해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주목되는 부분은 방역 대책이다. 군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장성읍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백양사 휴게소 순천방향에도 임시 선별검사소를 마련해 고속도로 이용객들이 누구나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확진자로 진단되면 재택치료를 안내하고 거주지 보건소로 이관한다.

연휴에 급하게 병원을 찾는 일이 생겼다면 장성병원을 가면 된다. 휴일에도 동일하게 24시간 응급 진료를 이어간다. 약국 중에서는 장성읍 티미널종로약국이 휴일에도 쉬는 날 없이 문을 연다. 진원보건지소는 설날 당일에도 진료한다.

기타 장성지역 병·의원 운영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려면 장성군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확인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 콜센터(120)에 전화하면 된다.

쓰레기 수거 계획도 알아두면 좋다. 일반쓰레기의 경우 21, 23일에는 장성읍만 가져가고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에 전체 읍면 쓰레기를 수거한다. 음식물 쓰레기도 21일 장성읍, 진원·남면, 24일 전 지역 수거다. 수거 날짜 외에 배출되지 않도록 명절 기간 알뜰한 상차림이 요구된다.

장성=김수권 기자

구례군 지리산역사문화관 설맞이 ‘전통 민속 탈 만들기’ 체험



구례군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는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관내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전통 민속 탈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 많은 전통 탈 중에서도 유일하게 국보로 지정된 ▶양반탈 ▶호랑이탈

관내 어린이집 원아들 대상 프로그램 25일까지 지속 운영

▶각시탈 ▶토끼탈 ▶봉산탈을 만들어 탈마다 가진 재미난 특징을 배워보고, 직접 만든 탈을 쓰며 역사문화관 잔디 광장에서 '일씨 구 절씨구' 탈춤을 추어 보는 등 흥이 절로 나는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를 가졌다.

이 프로그램은 1월 11일부터 시작해서 1월 25일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리산역사문화관 관계자는 “겨울방학을 활용하여 민화그리기, 전통탈 만들기 등 계절별 절기에 맞춘 세시풍속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례=박진호 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 SPS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엔텍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날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관